

발 씻김에 대한 묵상

요한복음 13 장

by The Reverend Frances Taylor Gench

매년 세족 목요일이 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가지셨던 만찬을 기념한다. 이 내용을 다룬 요한복음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성찬식의 제정에 관한 것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떡과 잔을 놓고 찢으시는 예수님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다. 그대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세족식의 사건이 그 자리에 있다.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한 그의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다가 가셨는데, 이것은 그곳은 그의 사랑이 극대화되며 최고의 가시적인 표현인 것이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 13:1). 그 사랑이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도의 속성과 그의 죽음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동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만들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요 13:3-5)

도대체 이러한 놀랄만한 행동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종종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세족을 설명하는 두개의 해석이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환대를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두번째는 그것을 베푸는 것이다. 재미난 사실은 교회에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첫번째 해석이 종종 빠져있고, 두번째 해석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것은 환대를 베풀기가 받기보다는 쉬운 까닭일지도 모른다. 외형상으로, 세족이 교회가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직 완전하게 빠지지 못했다.”¹

세족에 관한 첫번째 해석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또 그들을 위한 그의 겸손한 죽음의 징표로 상징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라는 이해를 전달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벗을) 그의 옷을 벗고, 황송하게도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으심으로 그의 존엄성을 양보했다. 발을 씻김은 대단히 친밀한 관계의 행동이다. 그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행해진 겸손에 근거한 이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과의 깊은 관계로 - 자신이 하나님과 즐기는 같은 친밀한 관계 - 끌어 들인다. 베드로가 반대하며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치 않을 때, 사قيم이나 내주하는 관계가 아님을 설명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 절) 라는 말씀을 하신다. 쉽게 흥분하는 베드로는 반대방향으로 치달으며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씻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조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죽음은, 제자들을 깊은 관계로 끌어 들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씻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발 씻기는 것의 첫번 해석은 제자들과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도록 요구한다. 주석가 게일 오데이 (Gail O'Day) 가 관찰한 것 처럼 이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발 씻김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없애고 그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볼 수 있도록 인도한다.”² 베드로와 유다 두사람의 반응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랑과 환대의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부여주고 있다.

두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훨씬 더 익숙한 발 씻김의 해석은 제자들과 교회에게 예수의 본을 받아 따를 것을 요구한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 13:14-15).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따를 수 있는 겸손과 봉사의 본보기로서 자신을 드리신다.

그러나, 이 발 씻김의 두번째 해석은, 그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하게 “겸손한 봉사”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첫번 해석 못지않게 도전적이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서로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가? 주석가 웨스 하워드 브루크 (Wes Howard-Brook) 는 발 씻김은 우리 자신에게 숨겨져있는 부분들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을 허무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배우도록 초청한다고 말했다. 발 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다. 사실, 발은 우리가 외모를 바꾸기 위하여 특별히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보여주는 적당한 상징”이다. 우리의 굽은 발가락들, 물집, 티눈, 그리고 변색된 발톱은 우리를 무척 놀라게 해준다. “타인이 내 발을 보고, 씻겨주고, 돌볼수 있도록 청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다.”³ 그런데, 이러한 친밀함은 위험을 수반하고 우리 사이에 배반자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또 이웃들과 같이하는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아마도 요한의 본문은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의 경험 가운데 존재하는 친밀함을 가로막는 담들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친밀함은 크리스찬 공동체의 사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우리를 세상의 선교로 인도하며 요한은 세상이 아주 거칠고 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에도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 자신의 계속되는 선교를 우리들이 수행함에 있어서 보내고 돌아오며, 오고 가는 사역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이 있는 친밀한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후, 그의 발은 그를 십자가로 옮기었고, 우리들은 그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다. 소설가 후레드릭 부크너(Fredrick Buechner) 는 그의 고찰을 진실되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신 자신이 원하고 있는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⁴

스토리 읽기

요한복음 13 장의 극적 내용을 읽어 봅시다. 해설자와 예수와 베드로의 역할을 분담 시키시오.

토의와 묵상을 위한 질문들

- * 이 내용에서 가장 당신의 주목을 끈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질문들을 제기 하는가?
- * 환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일은 우리의 신앙성장에 중요한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누구에겐가 환대를 베풀거나 누구의 대접을 받는 것이 어려운가? 왜 그런가? 이것은 베드로의 불편한 심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 * 장로교인인 저희들에게 발 씻김은 흔히 있는 예식은 아닐는지 모른다. 만약 우리 중에서 세족 예배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경험을 같이 나누도록 하라.
- * 당신이 세족예식에 기꺼히 참여 하겠는가? 한다면 왜? 아니면 왜 안 하는가?
- * 요한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성찬식이 없이 오직 발 씻김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발 씻김이 만찬의 장소에서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상징적인 행동이며; 그것은 예수의 본을 따라서 행하라는 명령을 동반하고 있다. 신약학자인 레이몬드 브라운 (Raymond Brown) 은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질문을 던진다.

너무나 경건하기에, 기독교 역사에서 분쟁이 생길 때마다 거의 모든 방면에서 성찬식은 분쟁적이었다. 크리스찬들이 세족에 관하여도 이 정도로 논쟁을 과연 하겠는가? 많은 신자들은 성찬식을 집행하는 특권을 놓고도 경쟁한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는 “특권”을 놓고도 경쟁을 할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을 놓고 논쟁을 벌일 것인가? 그렇다면 왜? 아니면 왜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에 관하여 우리는 논쟁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 * 본문과 미국장로교가 겪는 분쟁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당신은 생각 하는가?
- * 당신이 오늘의 본문을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떠한 통찰력이 떠오르는가?
- *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긴 후에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 하는가?

- *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당신은 어떠한 통찰력을 얻었는가?

¹ Fred B. Craddock, *John Knox Preaching Guides* (Atlanta: John Knox, 1982), p. 101.

² Gail R. O'Day, "The Gospel of Joh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X (Nashville: Abingdon, 1995), p. 727.

³ Wes Howard-Brook, *John's Gospel and the Renewal of the Church* (Maryknoll, New York: Orbis, 1997), p. 97.

⁴ Fredrick Buechner, *Wishful Thinking: A Theological ABC*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p. 27.